



100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고양시의회

- 2015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공무국외연수보고서

■ 기 간: 2015. 4. 3(금) ~ 4. 9(목)

■ 장 소: 미 국(뉴욕, 워싱턴)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차

I. 연 수 개 요	3
II. 연수 주요 일정	4
III. 미합중국 및 방문도시 현황	5
IV. 방문기관별 연수내용	
1. 뉴욕한인회	8
2.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회	11
3. 뉴욕총영사관	14
4. 뉴욕무역관	17
5. 미국 국회의사당	19
6. UN 본부	21
7. 뉴욕 하이라인파크	22
V. 방문성과 및 시사점	23

- 2015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공무국외연수보고서

I 연수 개요

1. 연수기간: 2015. 4. 3.(금) ~ 4. 9.(목) [4박 7일]

2. 연수국가: 미국(뉴욕, 워싱턴)

3. 연수목적

- 미국 동부 뉴욕, 워싱턴 지역의 주요 시설 견학과 문화탐방을 통해 국제적 시각 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료를 수집
-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회를 방문하여 「2015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홍보하고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 운영현황 비교 연구

4. 연수인원: 총 14명(의원 9명, 전문위원 1명, 직원 4명)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1	고양시의회	의 장	선 재 길	남
2	"	위원장	권 순 영	여
3	"	의 원	강 주 내	여
4	"	의 원	김 영 식	남
5	"	의 원	박 상 준	남
6	"	의 원	윤 용 석	남
7	"	의 원	이 규 열	남
8	"	의 원	이 윤 승	여
9	"	의 원	조 현 숙	여
10	"	전문위원	한 찬 희	남
11	"	주무관	윤 병 철	남
12	"	주무관	정 해 천	남
13	"	주무관	이 수 용	남
14	"	주무관	윤 여 일	남

II

연수 주요 일정

일 자	지 역	세 부 일 정	비고
제1일 4월 3일 (금)	뉴 욕	☐ 뉴욕한인회 방문 - 고양시의회와 뉴욕한인회 우호 교류 - 한인동포의 권익신장과 위상강화 활동사항 청취 ☐ 주요 역사·문화 시설 견학 - 메트로폴리탄 역사박물관	
제2일 4월 4일 (토)	워싱턴 D.C	☐ 미국 지방자치제도 및 선진의회 시설 견학 - 국회의사당, 제퍼슨기념관, 링컨기념관 ☐ 조지타운 대학 방문 - 미국의 인재양성 교육정책 고찰	
제3일 4월 5일 (일)	필라델 피아	☐ 주요 역사 현장 방문 -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자유의 종, 필라델피아 미술관	
제4일 4월 6일 (월)	뉴 욕	☐ 펠리세이즈 파크 시의회 방문 - 의회차원의 교류와 협력방안 논의 - 의회제도 운용 및 의정활동 모범사례 수집 - 펠리세이즈 파크시 위안부 기림비 방문 ☐ 유엔(UN) 본부 견학 - UN역할 및 평화유지 활동 청취 ☐ 뉴욕총영사관 방문 - 총영사 접견 및 영사관 주요시설 견학 - 미동부 지역 현황 및 교민지원 정책 청취 ☐ 뉴욕코트라 방문 - 뉴욕무역관장 접견 및 무역관 시설 견학 - 미국 시장 및 경제 전반 청취	
제5일 4월 7일 (화)	뉴 욕	☐ 주요 역사·문화 시설 견학 - 9.11의 아픔 그라운드 제로, 링컨센터 ☐ 뉴욕 하이라인파크 방문 - 도시재생 프로젝트 성공사례 벤치마킹	
제6일 4월 8일 (수)	뉴욕	J.F.K 국제공항 출발	
제7일 4월 9일 (목)	인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Ⅲ 미합중국 및 방문도시 현황

1. 일반현황



수 도	워싱턴 (Washington D.C.)	영 어	영어(English)
인 구	약 3억명	화 폐	달러(\$)와 센트(¢)
주요민족	백인(83%), 흑인(12%), 인디언과 동양계(5%)	면 적	963만km ² (한반도의 42배)
주요도시	워싱턴(Washington D.C.) 뉴욕(New York)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종 교	개신교(66%), 로마가톨릭(28%), 유대교(2%)

2. 방문도시 현황

가. 뉴욕(New York)

- 미대륙 동부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뉴욕은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크스,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5개 독립구로 나누어져 있다. 이중 뉴욕관광의 중심지인 맨해튼은 동쪽으로 이스트강, 서쪽으로 허드슨강, 남쪽으로 어퍼 뉴욕만에 둘러싸인 기다란 섬으로 맨해튼이 뉴욕으로 알려졌을 정도이다.

- 맨해튼 섬은 이탈리아 항해사 지오반니 다 베라자노(Giovanni da Verrazano)가 1524년 최초로 발견하였다. 그 후 1626년 네덜란드가 허드슨 강에 진출해 맨해튼에 뉴암스테르담을 세우고, 1825년 에리 운하가 개통되고, 활발한 무역거래가 시작되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
- 세계적인 대도시인 뉴욕은 상업, 금융, 미디어, 예술, 패션, 연구, 기술,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세계의 문화 수도로 불리기도 한다. 세계의 경제 중심지라고 불리는 맨해튼은 미동부 중에서도 가장 발달되고 아름다운 도시 중의 도시이다.
- 유명한 쇼핑가와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불리는 월 스트리트, 예술, 문화의 중심지인 브로드웨이 등 뉴욕을 대표하는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 뉴욕에는 5번로를 포함한 거리, 자유의 여신상을 포함한 랜드마크가 많이 있으며, 연간 5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타임스 스퀘어 부근에서는 브로드웨이 연극이 상연되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포함한 초고층 건물, 센트럴 파크를 포함한 공원, 다리도 많이 있다.
- 경제 수도로도 불리는 뉴욕에는 월가가 있으며, 뉴욕 증권거래소가 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방문지인 UN본부, 록펠러 센터 등 이외에도 많은 세계의 패션들과 문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나. 워싱턴 D.C.

- 워싱턴 D.C.는 미합중국의 수도이며 명실공히 국제 정치, 외교의 중심지이다. 워싱턴 D.C.라는 이름은 미국 초대대통령 워싱턴과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District of Columbia), 컬럼비아 지구 안에 감춰져 있는 사람 즉 바로 콜럼버스를 상징하는 명칭이다.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이어 1790년에 세 번째 수도로 확정, 1800년에 옮겨왔다. 워싱턴 D.C.는 연방직속의 특별구역으로 1974년까지는 의회의 지배를 받아 시장은 대통령이 지명했으나 그 후 선거로 선출하며 자치성이 강화되었다.

- 봄이나 가을에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봄에는 화려한 과일나무들과 식물원의 꽃들이 화려하게 꽃망울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여름내 봄볕던 방문객들이 떠나고 여유로운 관광을 즐길 수 있어 좋다. 워싱턴의 여름은 무덥고 습도도 높은 편이며 겨울에는 비교적 춥다. 미국 정치 등에 관심이 있다면 회기 중 국회에 참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수많은 국가기념물과 박물관, 더불어 미국 연방 정부의 3부의 중심 관청이 모두 이곳에 있다.
- 워싱턴 D.C.에는 174개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메리카 국가기구, 아메리카 개발은행, 범아메리카 의료기구의 본부가 있다. 이곳 워싱턴 D.C.에는 숲, 호수, 그리고 대리석 건물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아름다운 도시로, 백악관, 국회의사당, 링컨기념관, 알링턴국립묘지, 한국전기념공원, 그리고 세계 최대의 박물관인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많은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다.

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Palisades park)시

- 뉴저지주는 미국의 동북부 뉴욕주와 접하여 있으며 21개의 카운티(COUNTY)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카운티는 여러 개의 시를 가지는데 팰리세이즈 파크 시는 버겐 카운티에 속한 구역이며, 1899년에 형성되었다.
- 허드슨 강 연안의 포트리에 인접하여, 뉴욕의 서북부에 위치는 교외주택지이다. 1920년~1930년대에 인구가 급증하였으며, 최근에도 한인 인구유입이 지속되어 약 2만 명의 인구 중 53%가 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 팰리세이즈 파크시는 한인들이 65%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중심도로인 브로드애비뉴 2km 구간이 98% 한인업소로 채워질 만큼 해외 한인타운으로는 가장 높은 밀집률을 보이고 있고 뉴저지 최초의 한인타운으로 지정된 미국 한인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이다.

1. 뉴욕한인회

● 방문개요

- 방문일시: 2015. 4. 3.(금) 13:00~14:00
- 장 소: 한인회 대강당
- 참 석 자: 민승기 회장, 이영우 부이사장, 김기태 고문, 설정남 고문, 한양희 이사, 장준영 정책/의전부회장, 김현준 대내부회장, 조성환 사무총장 등

● 기관현황

- 창 립: 1960년 6월
- 위 치: 149 West 24th street, 6th Fl. New York, NY10011
- 홈페이지: <http://www.nykorean.org>
- 주요활동

명실공히 메트로폴리탄 일원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50만 한인동포의 권익신장과 위상강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 지역, 직능, 봉사, 사회, 문화, 교육 등 동포사회 500여 개가 넘는 단체들과 더불어, 동포사회가 미 주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한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1960년 초대 서상복 회장을 시작으로 현재 민승기 회장이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뉴욕한인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50만 한인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뉴욕한인회관



뉴욕한인회에서 단체사진

● 방문내용



권순영 위원장 인사말씀



뉴욕한인회와 간담회

민승기 회장을 비롯한 김기태 고문, 한양희 이사 등 주요 임원진들이 우리 방문단을 환영해 주었다.

먼저 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양시의회의 뉴욕한인회 방문을 환영하며 뉴욕한인회가 한인세대 간 소통과 신뢰를 통해 정체성 확립은 물론 미주한인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선재길 의장은 답사에서 고양시의회 방문단을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며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한인 여러분의 활약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한 권순영 위원장은 55년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한인회의 환대에 회장과 임원진에게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10번째 100만 도시인 고양시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우호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했다.

이어 민 회장 및 주요 간부진으로부터 뉴욕한인회 창립, 한인동포의 권익신장과 위상강화 활동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뉴욕한인회는 미주한인의 이민 역사가 새로운 백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타민족과의 연대를 모색하며, 한인 2세들에게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 한인사회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는 일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본격적인 이민이 이뤄진 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40여 년간의 미주한인이민사를 돌아볼 때, 향후 10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1세대들은

물론 1.5세~2세들이 미 주류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곳곳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한인들의 역량이 강화됐고, 노하우가 있으며 이제는 이들이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1982년 120만불을 들여 구입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맨해튼 24가에 위치한 뉴욕한인회관은 현지 시가로 3천만불에 달하며 한인들의 커뮤니티 형성에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영우 부이사장은 유소년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뉴욕한인회와 고양시가 뉴욕에서 축구교류전을 갖자고 제안했다. 윤용석 의원은 접경지역인 고양시는 평화문제에 대해서 협력하며 청소년 등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같이 협력하자고 말했다.

박상준 의원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는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점 질의에 대해 조성환 사무총장은 총영사관과 협조하여 문제점 개선 및 투표율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승기 회장에게 기념품 전달



뉴욕한인회 임원진과 단체사진

● 시사점

뉴욕한인회 한인동포의 권익신장과 위상강화 활동사항을 견학했으며, 한민족의 끈기와 끈끈한 유대관계 형성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50만 뉴욕한인회와 100만 고양시 간에 교육, 문화예술,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회

● 방문개요

- 방문일시: 2015. 4. 6.(월) 10:00~11:30
- 장 소: 대회의실
- 참 석 자: 로툰도(JAMES ROTUNDO) 시장, 제이슨 김(JASON KIM) 부시장, 이종철(JONG CHUL LEE) 의장, 크리스토퍼 정(CHRISTOPHER CHUNG) 의원

● 기관현황

- 위 치: 275 Broad Avenue, Palisades Park, NJ 07650
- 홈페이지: <http://www.palisadesparknj.us/>
- 주요 활동

팰리세이즈 파크(Palisades Park)시는 버겐 카운티 70개 자치구 중 하나이다. 인구는 2만 명에 불과 하지만 면적은 우리나라 행정동 4~5개를 합쳐놓은 정도로 크다. 시장 1명과 시의원 6명, 180여 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으며 시장의 임기는 4년, 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팰리세이즈 파크 시 인구의 53%가 한인이지만 한인 시민권자의 비율이 낮은 편이고, 유권자 등록률도 낮아 전체 유권자 7,500여 명 중 한인유권자는 1,500명 내외이다.

시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선출은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서 결정되며, 임기가 1년 미만의 시의원 결원이 발생하면 주민들의 직선으로 시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나머지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원 시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팰리세이즈 파크 시청사



좌로부터 이종철 의장, 제임스 로툰도 시장,
제이슨 김 부시장, 크리스토퍼 정 의원

● 방문내용

로튼도 시장은 팰리세이즈 파크 시를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하며, 고양시의회 의원 여러분을 만난 것에 행복하며 의회 간 좋은 프로그램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답사에서 권순영 위원장은 환대해 주신 로튼도 시장님을 비롯한 이종철 의장님, 제이슨 김 부시장님, 크리스토퍼 정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팰리세이즈 파크 시에는 53%가 한인들로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며 특히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되어 있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국외연수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팰리세이즈 파크 시를 방문해서 많은 것을 배워나가겠으며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리는바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회 의원님들의 방문을 요청했다.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 경우 임기가 1년 미만의 시의원 결원이 생기면 주민들의 직선으로 시의원을 다시 뽑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나머지 의원들이 결원 시의원을 선출한다는 것이 이색적이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1달에 한 번 시장과 6명의 시의원이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며 입법부의 권한이 크다고 한다. 팰리세이즈 파크시의회는 시의원 6명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어서 의견이 나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철저한 지방자치제도여서 치안, 교육분야 역시 주민의 세금으로 모두 운영된다고 한다.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타운 간에 역할이 나뉘어 있어, 예를 들어 골목은 카운티가, 골목 사이는 주정부, 주정부 간 도로는 연방에서 관리한다.

시의원 선출은 예비선거를 거쳐 본 선거를 치르며 매년 선거를 치른다고 한다. 한국과 달리 시의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따로 있지 않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종철 의장은 위안부 기림비를 만들 때 로튼도 시장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 4명이 팰리세이즈 파크 시를 방문

하여 철거를 요구했으나, 로튼도 시장은 위안부 기림비는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이를 막아줬다. 한국계를 제외한 현지 주민들은 기림비 건립을 반대했으나, 로튼도 시장을 비롯한 당시 시의원들은 정치생명을 걸고 인권에 관한 문제라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다고 한다.

펠리세이즈 파크 시에는 53%가 한인인데도 등록된 유권자가 1,500명 내외에 불과하여, 자연스레 한인 시민권자들의 유권자 등록률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고 이종철 의장은 강조했다.

양 도시 의원들은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협력이 요구되는 글로벌 시대에 두 도시가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 관계의 지평을 넓혀나가기에 다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 시 사 점

펠리세이즈 파크 시는 미국 어느 지역보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6명의 시의원 중 2명이 한국계이며, 그중 한 명이 의장을 맡는 등 한인들의 위상이 높은 곳이다. 이종철 의장과 제임즈 김 부시장 등 한국계 정치인들은 미국인들에게 한인유권자의 단합된 힘을 알리고,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었다.

지방자치 역사가 깊은 미국답게 아래로부터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나설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제도 개선과 주민참여 의식제고, 주민참여 행정실현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제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미국 뉴저지 펠리세이즈 파크 시의회 방문이었다.



펠리세이즈 파크 시의회와 간담회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및 의원과 단체사진



제이슨 김 부시장의 지역 설명



위안부 기림비

3. 뉴욕총영사관

● 방문개요

- 방문일시: 2015. 4. 6(월) 15:30~16:00
- 장 소: 회의실
- 참 석 자: 김형길 부총영사, 김유민 영사

● 기관현황

- 위 치: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 홈페이지: <http://usa-newyork.mofa.go.kr/>
- 주요 활동

미국 뉴욕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총영사관. 주미 대사관 산하 미국 내 11개의 총영사관 중 하나다. 뉴욕(New York), 뉴저지(New Jersey), 코네티컷(Connecticut),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델라웨어(Delaware) 등 5개 주를 관할한다. 1949년 4월 1일 신설됐다.

※ 주뉴욕총영사: 김기환(1957년생)

- 2015. 4. 7. 부임
- 서울대 법대 졸업, 제17회 외무고시 합격, 1983년 외교부 입부, 신흥시장과장, 통상법무과장, 자유무역협정정책국 심의관, 다자통상국장, 주미대사관 경제공사 등을 역임한 국제통상 전문가.

경제·통상·문화·홍보·영사 업무를 수행한다. 경제 관련 업무로 미국의 경제정세 및 동향파악, 경제협력, 진출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영사 업무로는 교민보호 및 여권, 비자 발급, 호적정리, 재외국민등록 등의 일을 한다.

● 방문내용

김기환 신임 주뉴욕총영사가 부임 전인 관계로 김형길 부총영사관이 우리 방문단을 환영해 주었으며, 공관 및 관할지 현황, 주요 추진 업무 등 영사관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뉴욕총영사관 입주 건물



김형길 부총영사관의 브리핑

뉴욕총영사관에는 영사 24명(외교부 13, 주재관 11), 행정직원 42명(본청 20, 민원실 12, 문화원 7, 관저 2, 지자체 1)이 상주하고 있으며, 영사관 업무는 대부분 여권, 비자, 호적, 병역 관련이라고 한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거의 즉시로 단수여권(1회 사용)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행하여 국민들이 출입하는데 불편이 거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권의 경우 독일은 분실하면 발급하는 데 2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자정부화되어 신원조회 등이 빠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뉴욕총영사관은 일 3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처리를 하며 작년 최우수 영사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글학교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 뉴저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증을 추진하고 있어 거의 성사 단계에 있다고 한다.

미동부 지역 정·관계, 학술·연구 기관, 참전용사 등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국 내 한국지지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국정목표 및 정책달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미국 금융시장 및 재정·금융정책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며 한미 FTA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및 통상 증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의 현장 애로 해소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권순영 위원장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외국민선거 투표율이 저조했던바, 투표율 제고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강주내 부위원장은 미동부 지역 거주 동포들 보호에 매진해 달라고 했으며, 윤용석 의원은 어려운 동포들을 지원하며 영사관이 구심점이 되어 동포 화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형길 부총영사관은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법 개정,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일 사건 이후 재외국민 보호에 각별히 힘쓰고 있으며, 비상연락체계 정비, 이슈가 있을 때 바로 해결하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의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양시의회와 총영사관 간담회



단체 기념사진

● 시사점

이번 뉴욕총영사관 방문을 통해 미동부 지역 동포사회의 화합과 결속을 지원하고 본국정부와 유대 강화를 추진하며, 동포들의 미국 주류사회 진출 확대와 정치력 신장을 도모하고 있는 뉴욕총영사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영사관 협조를 받아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 인구 100만 고양시를 널리 알리고 관련 자료 배포를 요청하는 등 고양시 홍보 및 협력창구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뉴욕무역관(KOTRA)

● 방문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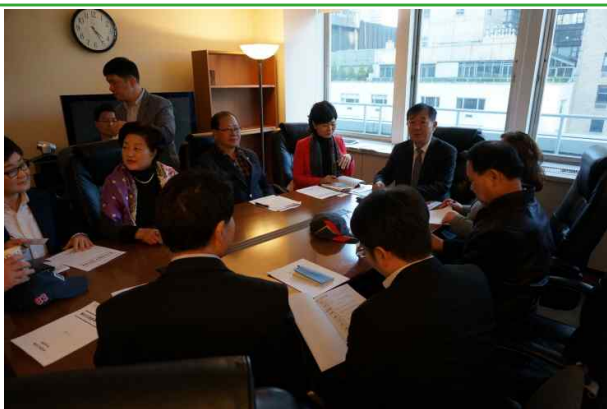
- 방문일시: 2015. 4. 6(월) 16:00~17:00
- 장 소: 회의실
- 참 석 자: 이태식 북미지역총괄본부장, 이수정 부관장

● 기관현황

- 위 치: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KBC/newyork/>
- 주요 활동

뉴욕코트라 해외무역관은 1962년 11월 16일 개설 이래 미국의 경제 중심지인 뉴욕을 포함한 동부지역에 대한 무역통상 및 투자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미국 동부지역 진출을 위한 각종 마케팅 활동(지사화 사업, 시장개척단 지원, 전시회 참가, UN조달, 글로벌 기업과 협력사업 등)과 투자유치 활동(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 투자유치단 방문 지원, 한국 투자환경 홍보활동 등), 그리고 미국 경제 및 시장 전반에 대한 정보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뉴욕무역관과 간담회



기념품 전달

● 방문내용

이태식 북미지역총괄본부장이 우리 고양시의회 방문단을 환대해주었다. 중동, 동남아 등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뉴욕무역관에는 작년 2

월 1일자로 부임했다고 한다. 미국 동부지역 문화, 경제 등 역동성을 느끼고 가기를 주문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KOTRA 북미지역 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사항, FTA 3주년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북미지역 2개국(미국, 캐나다)에 10개 무역관, 17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뉴욕무역관은 28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사업 목표는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3% 돌파(740억불)이며 2015년 대표사업으로는 북미 자동차부품시장 대·중·소 동반 진출, 2015 Korea Food Festival 개최, 한미공공조달파트너십 개최, 북미시장 문화콘텐츠 라이선싱 상품 설명회 등이 있다.

2월 대미 수출액은 50억불에 달하며 주요 권역별 최고 증가세를 보여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한다. 품목별로는 승용차, 반도체, 석유제품, 타이어 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도 1만 6천 개사의 2014년 수출액도 213억불에 달하고 있다.

FTA 3주년 성과와 관련하여 FTA 수혜품목 대미 수출은 연평균 7.2% 증가, 비수혜품목은 7.1% 증가하였으며, 2016년 1월 승용차 관세의 철폐로 수혜품목 수출 비중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미국 수출입 동향과 관련해서는 2014년 연간 수입은 23,458억불(+3.4%), 수출은 16,233억불(+2.8%)을 기록했다.

선재길 의장은 고양 킨텍스와 관련,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바 코트라의 협조를 요청했다. 권순영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출 위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모두가 고객들이라 생각하며 해외에 있는 참가업체 유치, 바이어 유치를 통해 지자체를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으며, 이것이 무역관 본연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취업과 관련 이공대가 취업하기가 유리하나, 취업비자 쿼터가 있어 취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취업비자 추첨이 걸림돌이다. 취업비자 쿼터를 늘이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창업센터 지원에도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뉴욕무역관의 역점 추진사업



뉴욕무역관에서 단체사진

● 시사점

뉴욕은 미국 내 최대 한인거주 지역 중 하나로 어느 지역보다 국내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뉴욕무역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고양 지역 중소기업들의 미주시장 공략에 힘써야 할 것이다.

5. 미국 국회의사당(United States Capitol)

○ 방문일시: 2015. 4. 4(토) 10:00~11:00

○ 방문내용

미국 국회의사당은 워싱턴 내셔널 몰(National Mall) 끝 부분에 있으며,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1793년 9월에 착공하여 1800년 11월에 완공되었다. 돔이 우뚝 솟은 네오클래식 양식의 웅장한 건물은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돔의 정상에는 청동으로 제작된 자유의 여신상이 위치하고 있다.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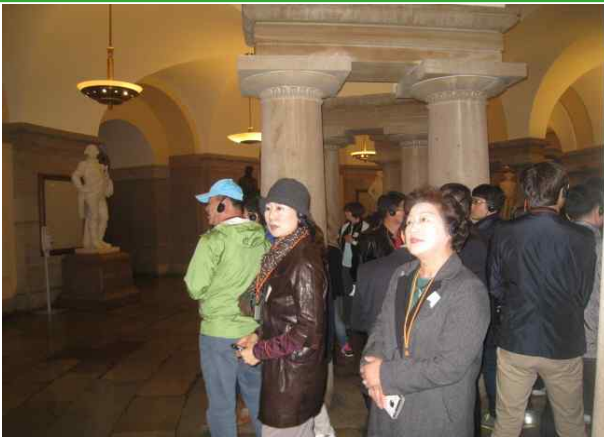
국회의사당에서 단체사진

건물의 북쪽은 상원, 남쪽은 하원이 사용하며 가운데 돔의 바로 밑은 원형의 홀로 되어 있다. 원형 홀의 동쪽으로 콜럼버스의 생애를 표현한 그의 청동문이 나 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은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의 관공서 중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이다.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그 크기와 화려함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미국에서는 의회가 국가의 최고 '주권(主權)' 기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하겠다.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보았던 20분 남짓의 영상물이 무척 인상 깊었다. 영상은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묶을까?", "수많은 인종, 다양한 문화, 각기 다른 사고와 생활양식을 가진 개인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미국에 사는 다양한 인종들, 미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STATE)들을 보여준다.

이어서 나간 곳은 Dome 아래, 즉 국회의사당의 정 중앙에 해당하는 장소는 "자유의 신전(Temple of Liberty)"라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는 미국 역대 대통령의 흉상이 비치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는 돔으로부터 자연광이 내려오는 원형의 넓은 공간이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국가수반뿐만 아니라 무공을 세운 장군, 과학자 등 나라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개인들도 이곳에 모셔질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국장을 치르고 난 후 관은 이곳에 모셔지고 사람들이 참배할 수 있게끔 한다.

	
국회의사당 견학	국회의사당 안내 한국어 리플렛

○ 시 사 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지탱하는 이념에는 '자유와 명예'의 의식이 깊이 박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어쨌든 미국은 오래되었으며 부강한 나라고, 그 중심에는 의회, 그리고 시민이 있었음을 한 번 더 확인한 기회였다.

6. UN 본부

○ 방문일시: 2015. 4. 6(월) 14:00~15:00



UN 본부 전경



UN 본부에서 단체사진

○ 주요내용

세계 각국의 정부대표단이 들어서 있는 UN복합단지로는 컨퍼런스 빌딩(Conference Building), 유엔총회빌딩(General Assembly Building), 사무국빌딩(Secretariat Building), UN공원(U.N. Garden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드타운의 동쪽 이스트 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UN본부 안내 가이드는 한국인이었다. 정 가이드는 UN 소속 직원으로 한국인 직원은 140여 명이 근무한다고 한다. 영어 구사는 당연히 해야 하며 제2외국어에도 능숙해야 한다고 했다.

유엔 건물은 전 세계에서 온 건축가들이 힘을 모아 디자인하여 1953년에 완공되었다. 가이드의 안내로 UN총회장, 안전보장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등의 회의장을 관람하였다.

UN은 국제연합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의 5기관을 주요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든 직원의 대표이자 UN의 대표자가 사무총장이다. 자랑스럽게도 이러한 중요한

직책인 제8대 사무총장이 반기문 사무총장이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이고 반기문 사무총장은 재임했다.

○ 시사점

우리에게 열정을 다해 UN에서 하는 일과 UN 본부에 대해 설명해준 UN 직원이 한국인이어서 투어가 끝난 후 UN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들었다. 세계 평화를 위해 UN을 사랑하고 UN에 근무하기 위해서 언어는 단지 1%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던 정(Jung) 가이드의 조언이 가슴에 와 닿았다.



정 가이드의 UN 역할과 현황 설명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에서 단체사진

7. 뉴욕 하이라인파크(High Line Park)

○ 방문일시: 2015. 4. 7(화) 15:00~17:00



하이라인파크 답사



휴게 공간

○ 주요내용

하이라인(High Line)은 뉴욕 시에 있는 길이 1마일(1.6km) 공원이자 다. 웨스트사이드 노선으로 맨해튼의 로어 웨스트사이드에서 운행되

있던 1.45마일(2.33km)의 고가 화물 노선을 꽃과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해서 공원으로 재이용한 장소이다. 2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철길이 꽃과 풀과 나무가 자생하는 생태 공원으로 조성됐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뉴욕 하이라인파크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역 고가 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이라인파크에서 단체사진



레일에 부착되어 이동 가능한 벤치

○ 시사점

하이라인파크는 원래 옛날에 철로였던 곳을 공원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킨 곳이다. 뉴욕은 옛것을 잘 보존하여 옛것과 새것이 함께 공존하게끔 하는 도시라 생각된다. 낡(old)은 빌딩과 새롭게 개조된 공원의 알 수 없는 묘한 매력이 뉴욕의 매력이다.

지역 사회의 인재들의 경험을 교환하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펼쳐 도시계획 설계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점은 고양시의 지역 특성과 접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V 방문성과 및 시사점

해외 우수사례 연구 및 정책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한 이번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미국 연수는 「펠리세이즈 파크시의회」, 「뉴욕한인회」, 「뉴욕총영사관」, 「뉴욕코트라」, 「UN본부」, 「뉴욕 하이라인파크」 등 미국 동부 주요기관을 방문하고 선진국의 우수한 제도와 시설을 견학·체험함으로써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을 넓혔다고 자평한다.

1. 주민참여의 모범 美 펠리세이즈 파크 시의회

지방자치 역사가 깊은 미국답게 아래로부터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나설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미국의 지방의회와 시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각종 법안이나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계 정치인 제이슨 김 부시장 및 이종철 의장은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바른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의회도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시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과 무한한 신뢰회복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2. 미동부 주요 기관(단체)과 교류협력

먼저 뉴욕한인회 방문에서 한인동포의 권익신장과 위상강화 활동사항을 견학했으며, 한민족의 끈기와 끈끈한 유대관계 형성을 확인한 자리였다. 50만 뉴욕한인회와 100만 고양시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추진을 협의했다.

이어 동포들의 미국 주류사회 진출 확대와 정치력 신장을 도모하고 있는 뉴욕총영사관 방문을 통해 미동부 지역현황 및 교민지원 정책을 청취했으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00만 고양시를 널리 알리고 관련 자료 배포를 요청하는 등 고양시 홍보 및 협력 창구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뉴욕은 미국 내 최대 한인거주 지역 중 하나로 어느 지역보다 관내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만큼, 뉴욕무육관을 최대한 이용하며,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고양 지역 중소기업들의 미주시장 공략에 발판이 되고자 했다.

3. 도심재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뉴욕 하이라인파크는 원래 옛날에 철로였던 곳을 공원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킨 곳이다. 웨스트사이드 노선으로 맨해튼의 로어 웨스트사

이드에서 운행되었던 1.45마일(2.33km)의 고가 화물 노선을 꽃과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해서 공원으로 재이용한 장소이다. 하이라인파크 도심재개발 사례는 문화시설의 건립과 그 운영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

4. 지역 명소와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미국의 문화관광 시설은 전통과 자연을 중시하는 각종 볼거리를 관광 명소화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우리보다 짧은 역사지만, 지역 명소와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있었다. 콘텐츠의 재구성을 위한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져 연중 꾸준한 관광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필라델피아 ‘자유의 종(Liberty Bell)’의 경우 미국 독립 역사라는 콘텐츠를 담아 시설을 확장하고 주변을 관광지화하고 있었다. 초강대국답게 관광지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있었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관광마케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5. 자유롭고 평등한 문화와 개인의 다양성 존중

미국은 자유롭고 평등한 문화와 개인들의 혼합으로 구성된 나라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이념을 실천해 오고 있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사회로 진출할 수 있다. 미국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미국은 양팔을 벌려 그들을 껴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다양한 인종들이 가진 다양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 내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인종 국가인 미국의 예를 통해 다문화 가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사람을 배려하는 교통문화

미국의 교통문화는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있었다. 골목마다 있는 정지선과 Stop 표지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인들은 일단 서고 본다. 그리고 다시 출발한다.

필라델피아 자유의 종을 보러 방문했을 때이다. 우연히 장애인이 버스 탑승 장면을 보게 됐다. 차량 자체가 장애인이 타기 쉽게 자동으로 문이 내려지고, 또 타고나서도 장애인이 좌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승객들이 자리를 마련해주고, 꼼꼼하게 장애인 휠체어가 잘 장착되었는지 확인 후 버스기사가 버스를 움직였다. 얼마나 장애인들을 배려하는지 잘 느낄 수 있었다.

7. 연수를 마치며,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연수단은 지난 4박 7일의 짧은 일정 속에서 미국 동부권의 주요 도시 견학을 통해 고양시의 비전과 정책과 제 발굴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경쟁적인 지방자치환경 속에서 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체질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의 역량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발굴해 지역발전과 100만 시민행복에 기여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보고 배운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100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고양시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